

2014년 봄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하나님의 경륜과 분배

메시지 5

신성한 로맨스 안에 살면서
신성한 분배를 체험함

성경: 롬 5:5, 8:35, 39, 15:30, 엡 3:14-19, 아 1:2-3, 3:6, 4:7, 15, 6:4

- I. 성경 안에는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분배의 내재적인 관계가 있다. 우리는 사랑이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—롬 5:5, 8:35, 39, 15:30.
- II.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 있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 그 신부인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—요 3:29, 마 25:6, 계 19:7, 21:2, 22:17.
 - A.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로맨스를 갖고 계셨다. 하나님은 배필을 갖으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—계 22:17.
 - B.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며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—막 12:30, 엡 3:14-19.
 - C.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며 아가서는 이 로맨스의 축약판이다—엡 1:2-3, 8:14.
 1. 성경은 로맨스의 책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애정어린 관계가 되어야 한다—아 4:7.
 2.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다면 우리는 애정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—아 1:2-3.
 3. 전체적으로 성경은 신성한 구애의 말씀이다.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본다—고후 11:2.
 - D.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께 주었고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갈망을 준다—요일 4:8, 16, 19.
 - E.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하시는 말씀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며 애정어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. 이러한 반응하며 애정어린 사랑은 아가서에 묘사되어 있으며 이 책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분과 그분의 연인 사이의 사랑에 대한 초상화를 갖는다—아 1:2-4, 고후 5:14-15, 요 14:21, 23.
 1. 아가서의 주제는 탁월한 결혼 안에 있는 사랑의 역사이며 믿는 이 개인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속한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계시한다—아 1:2.
 2. 아가서는 시적인 형태에 있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연인들 사이의 혼인의 사랑에 대한 기이하고 생생한 초상화이다—아 2:4, 6:3, 7:11-12, 8:5-6, 14.

III. 아가서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에 대한 체험과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의 생활의 관계를 본다.

- A. 만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성정과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—고후 5:14-15, 3:18.
- B. 아가서 안에 있는 추구자는 그녀의 연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신성한 분배를 체험했고 그녀의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었다—아 1:9, 15, 2:2, 14, 3:6-7, 4:7, 12-15, 6:4, 10, 13.
 - 1. “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”—아 1:2-3.
 - 2. “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”— 아 1:4 상.
 - 3. “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”— 아 1:12.
 - 4. “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”—아 3:6.
 - 5. “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”—아 4:7.
 - 6. “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”— 아 4:15.
 - 7. “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, 예루살렘 같이 곱고,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”— 아 6:4.
 - 8. “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”— 아 6:13 상.

IV. 무엇이든지 사람이 온 마음으로, 심지어 온 존재로 사랑하면 그것이 사람을 고정시키고 점유하며 소유한다—딤후 6:10-11, 딤후 3:2-4, 4:8, 10 상, 딤후 1:8.

- A. “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—영과 혼과 몸, 또는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(막 12:30)—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. 그 결과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고,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” (고전 2:9 의 1 번 각주 중에서).
- B.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감상하고, 우리의 존재를 그분을 향하게 하고, 그분께 열고, 그분을 누리고,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, 그분과 하나되고, 그분을 살며 그분이 되는 것이다—마 26:6-13, 고후 3:16, 막 12:30, 골 1:18, 고전 6:17, 빌 1:20-21, 영한 동번 찬송가# 477, 2 절.
- C. “주님을 모든 일에서 첫번째 위치에 둔다는 것은 그분을 첫째 가는 사랑,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다. 그분을 으뜸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조정받고 파쇄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. 그 결과 주님은 그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, 우리를 통해, 우리 가운데서 길을 얻으실 수 있다.” (활력 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관한 교통 제 2 권, 50 쪽).